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2.11. ~ 2.17.)

| | | | |
|---------------|---|-----------|-------------|
| 이번 주 읽을 본문 | 가정 | 창 44 - 50 | 막 14 - 눅 3 |
| | 개인 | 욘 10 - 17 | 롬 14 - 고전 4 |
| 이번 주 암송구절 | 바른 신학 - 다섯 오직(2) - 오직 은혜(1) | | |
| | 앱 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 |



로마서 14장 / 믿음이 연약한 자

개 요

- 1-12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13-23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삶은 수고로운 삶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1,2절). 그러나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자입니다(3,4절). 그러므로 내가 기준이 아니라 연약한 자도 받으신 주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5-8절). 주님이 기준입니다(9-12절).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치는 것이 있다면 형제를 위해 그것을 두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13-16절). 그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17-21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22,23절).

우리는 믿음을 어떤 규칙 목록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은 성경 지식은 형제를 넘어뜨리고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도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실현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때로는 이해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삶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벧전 2:16).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감히 넘어뜨리는 어리석음을 지혜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로마서 15장 / 믿음이 강한 자

개요

- 1-13 믿음이 강한 자
14-33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는 어떨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이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1,2절).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3절). 믿음이 강한 자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5-7절). 소망의 하나님은 서로 받는 그 사랑으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8-13절).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14-21절). 또한 그는 로마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22-29절). 바울은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로마 교회에 함께 기도하길 요청합니다(30-32절).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풍성한 자입니까?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경건생활을 다 지키는 자입니까? 깊은 기도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더 낮아지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덕을 세우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까?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약한 데서 강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월 13일(수)

창46

막16

욘12

롬16

로마서 16장 / 마지막 인사

개요

- 1-16 인사(1)
- 17-20 마지막 경고
- 21-24 인사(2)
- 25-27 송영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는 추천할 좋은 일꾼, 보좌를 알고 있습니다(1,2절). 신앙을 위해 아낌 없이 함께 한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습니다(3,4절). 복음의 열매도 있고, 로마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도 있습니다(5,6절).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7-15절). 바울은 이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모두 거룩한 공교회임을 깨닫게 합니다(1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고합니다(17,18절). 그들은 교회를 평강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19,20절). 바울의 동역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21-24절). 그리고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으로 마무리합니다(25-27절).

바울은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곁에 두신 동역자들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고, 세울 사람을 높였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고 적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이름들의 목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었을런지 모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다잡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편지를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곁에 주신 지체들로 인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2월 14일(목)

창47

눅1:1-38

욘13

고전1

고린도전서 1장 / 고린도교회의 분쟁과 지혜

개요

1-9 인사
10-17 분쟁
18-31 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합니다(1-9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2절).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11절). 여러 파로 나뉘어 다투고 있었습니다(12-17절). 사도는 그들에게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기를 권합니다(10절). 분쟁은 저마다 자기 육체 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18-31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주안에서 자랑하게 하셨습니다(29,31절).

하나님은 십자가의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생명이 되고, 패배가 승리가 되는 지혜였습니다. 기적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논리적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이상의 지혜를 누구에게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2월 15일(금)

창48

눅1:39-80

욘14

고전2

고린도전서 2장 /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개요

1-5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6-16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교회를 세운 말 씀은 화려한 언변으로도 아니요, 설득력있는 호소도 아니었습니다(1,2절). 바울이 전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3-5절). 그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감추시어 그리스도를 못 박히게 하신 지혜였습니다(6-8절). 그 지혜를 깨닫는 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사람뿐입니다(9-15절). 성령님 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16절).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님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마 음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 력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 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 옅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3장 /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다

개요

- 1-9 눈높이 교육
- 10-15 유일한 터이신 그리스도
- 16-23 주님의 성전, 주님의 소유

사도 바울은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1-4절).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뿐입니다(5-7절). 수고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8,9절). 우리의 유일한 터는 하나님이 두신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10-15절). 교회는 주님의 성전입니다(16,17절).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18-23절).

사람들은 앞에 선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열심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일의 주체요 제일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자요, 동시에 함께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의 집이요,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의 수고에 마음껏 박수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수고 위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터만이 유일하고 견고한 터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터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견고한 터인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 충성스러운 사랑

개요

- 1-5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 6-13 바울의 충성
- 14-21 복음을 전한 사랑의 수고

고린도전서 4장은 분쟁에 대한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 일을 맡은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1-4절). 충성은 주님의 날에 판단 받을 것이요, 그에 따른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것입니다(5절). 그러므로 교만은 미련한 생각이요, 자랑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6-8절). 오히려 충성하는 자는 비천한 처지에 이르기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9-13절). 높아지려는 사람은 많으나, 사랑으로 품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14-15절). 그러나 복음으로 충성스럽게 수고하는 자는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15절).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파벌싸움을 끝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히려 바울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본 받으라고 권면합니다(16-21절).

사랑은 희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희생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은 직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그 씨앗이요 거름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면, 주님이 우리가 맺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맺은 열매들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수고를 판단하고 인정하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고전 15:58; 빌 2:16).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께 우리 마음을 아뢰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주님은 아시지요. 그 사실에 참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 설교 노트

본문 :

날짜 :

| | |
|--|--|
| | |
|--|--|

❖ 설교 노트

본문 :

날짜 :

| | |
|--|--|
| | |
|--|--|